

18대 국회 개원 앞둔 광주·전남 당선자 설문



박주선 당선자 조영택 당선자 김영진 당선자 강운태 당선자 강기정 당선자 김재균 당선자 김동철 당선자 이용섭 당선자 박지원 당선자 김성근 당선자

“MB정부 가장 큰 실책은 한·미 쇠고기 협상”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 반대

광주·전남지역 18대 총선 당선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뚜렷이 드러났다. 이들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축소 등 새 정부가 제시한 주요 정책과 독선적인 국정운영방식에 대해 분명한 거부사를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새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거론함으로써 오는 30일 18대 국회 개원 이후 대 정부 투쟁방침을 분명히 했다.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

대부분의 당선자가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개발'을 조건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상천(고흥·보성) 의원은 "영산강 수질개선과 생태보호를 전제로 뱃길복원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선호(장흥·강진·영암) 의원은 "수질개선, 농업용수 확보, 관광사업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사업진행이 필

요하다"며,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는 환경 및 문화유산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낙연(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아우"라며 "정부는 진정한 목적을 밝히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균(광주 북구) 당선자는 "투자 대비 관광과 경제차원의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토목공사식 운하공사로 변질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선적 정책 혼란만 자초

■이대통령 국정운영 방향 평가

거의 모든 당선자가 '독선적, 편향적, 아마추어적'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위기관리 능력, 국정수행 능력이 없어 국가적 혼란을 자초했다'는 극단적인 평가도 마다하지 않았다. 서갑원(순천) 의원은 "70년대 개발 독재와 밀어붙이기식 사고방식으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용정부라지만, 실제로는 아무 성과도 없는 아마추어 정권이며, 국민

과의 소통과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철(광주 광산구갑) 의원은 "근본적으로 국가운영의 비전과 철학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로 인해 인사와 경제운용, 남북관계, 대미관계 등 국정 전반이 원칙 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인수위 때부터 시작된 오만과 독선, 독단적 인사가 설익은 정책을 낱발하게 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 당선자 | 영산강뱃길복원 | 공동혁신도시 | 이명박정부 평가 | 호남정치권 평가 |
|----------------|-------------------------------|-------------------|-----------------------------|--------------------------|
| 박주선 (광주 동구) | 한반도대운하와 별개로 조속 추진해야 | 국가균형발전 위해 원래대로 추진 | 부차, 기동권상 위헌 정책으로 국민적 지탄받아 | 옛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간 화합적 결함 인정 |
| 조영택 (광주 서갑) | 생태보전, 수질개선 조건 부 찬성 | - | 독선적, 편향적이며 위기 관리능력 없어 | 호남 정치상황과 내용에 대한 협의 부재 |
| 김영진 (광주 서을) | - | - | 일방통행식 정치, 쇠고기 협상은 큰 실책 | 화합과 국민 신뢰를 얻을, 정책 만들어야 |
| 강운태 (광주 남구) | - | - | 인사와 소통, 정책에 문제, 시행착오 반복 | 옛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화합적 결함 인정 |
| 강기정 (광주 북갑) | - | - | 내각인선, 공약적인 쇠고기 협상이 최대 실책 | DJ이후 지도자 없고, 정치권 노쇠화 |
| 김재균 (광주 북을) | 전면 백지화해야 | - | 국민 무시한 오만과 독선 | 민주세력의 소통과 결집 필요 |
| 김동철 (광주 광산갑) | 전문가 검증 거쳐 추진 검토 | - | 국정운영의 비전, 철학 없어 | 수권정당 위해 정치권 역학 결집해야 |
| 이용섭 (광주 광산을) | 생태보전, 수질개선 조건 부 찬성 | - | 통치권자 리더십 보다 기업 CEO 리더십에 기반 | 정치권 리더십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 |
| 박지원 (목포) | 대운하 건설차원의 뱃길 복원엔 반대 | - | 독단적 인사와 설익은 정책 낱발 | 민주당 지지세력 수도 큰 호남에서 복원해야 |
| 김성근 (여수 갑) | 내륙의 강은 수질개선, 생태보전 강화해야 | - | 쇠고기 협상은 독단적 국가경영 소산 | 민주당 지지세력 재편 필요 |
| 주승용 (여수 을) | 생태보전, 수질개선 조건 부 찬성 | - | 쇠고기 협상과 인사실 패가 가장 큰 실책 | 확실한 정책성 부재 |
| 서갑원 (순천) | - | - | 개발독재와 밀어붙이기식 사고로 국민 무시 | 정치권 지해모이 지역 현안 해결해야 |
| 최인기 (나주·화순) | - | - | 이마추어들이 국정운영 부실초래 | 민주·우리당 통합으로 호남정치권 결속 |
| 유은근 (평양) | - | - | 쇠고기 협상이 가장 큰 실책 | 지역사회에 대한 조정 능력 상실 |
| 김홍석 (영암·곡성·구례) | 정부 방침 확정 후 지역민 의견 중심으로 추진해야 | - | 정부 방침 확정 후 지역민 의견 중심으로 추진해야 | 광주·전남 이우리는 리더십 형성해야 |
| 박상천 (고흥·보성) | 생태보전, 수질개선 조건 부 찬성 | - | 경제발전, 소외계층 보호 책무 못해 | 당내 화합적 결함 통해 지도자 키워야 |
| 유선호 (영암·장흥·경진) | - | - | 오만과 독선, 무책임으로 국민지향적 정책 | 민주개혁 정책성 확실 해야 |
| 김영록 (해남·영도·신도) | - | - |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부족 | 강력한 지도자와 정치력 필요 |
| 이윤석 (무안·신안) | - | - | 소통 못한 것은 실책 | 여야 구분 없이 국가발전 위해 협력해야 |
| 이낙연 (정성·함평·영광) | 뱃길복원은 이윤만 비준 한 반도 대운하의 아우로 반대 | - | 생각과 중심, 사회적 약자 놓아두고 공통 의면 | 대선, 총선 패배로 새 진로 요구받아 |

한전 등 이전 후 민영화 추진해야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

20명의 당선자 모두가 '차질없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인기(나주·화순) 의원은 "국민의 동의하에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라며 "큰 수정 없이 발전적인 보완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운태(광주 남구) 당선자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한전 등 대상기관의 민영화는 이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효석(담양·곡성·구례) 의원은 "광주·전남이 공동 유지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지도자 필요성 공감

■지역 정치권 취약점·개선책

거듭된 분열과 신뢰상실로 호남 정치권이 지역사회에 대한 조정능력을 상실했으며, 새로운 정치세력 구축과 차세대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박주선(광주 동구) 당선자는 "과거 민주당 세력과 우리당 세력의 화합적 결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차기정

권 창출을 위한 정치적 재능을 육성하는데 소홀한 상황"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수권 야당 건설을 위한 헌신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광주 북구갑) 의원은 "DJ 이후 대중성 있는 지도자가 없고 정치권의 노쇠화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정당정치의 실종으로 지역민이 정치적 무기력증에 빠져있다"고 자평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전남 주요 현안 순위 (복수 응답 허용)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17명
2.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9명
3.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9명
4. 하계유네스코세계유산 광주 유적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7명
5. 서남권발전(프로젝트 포함) 6명
6. F1(포클랜드)대회 개최 4명
7. 농어촌 FTA후속대책 마련 3명



주승용 당선자 서갑원 당선자 최인기 당선자 유은근 당선자 김효석 당선자 박상천 당선자 유선호 당선자 김영록 당선자 이윤석 당선자 이낙연 당선자

무안공항에서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

| 지나투어 | 상매 | 왕산 | 장가계 | 골프 |
|--|--|---|--|----|
| <p>상매/함주/소주 4일</p> <p>389,000 원</p> <p>3박4일</p> | <p>상매/왕산/함주 5일</p> <p>599,000 원</p> <p>4박5일</p> | <p>상매/함주/장가계/가계/가계 5일</p> <p>829,000 원</p> <p>4박5일</p> | <p>상매골프 4일</p> <p>799,000 원</p> <p>3박4일</p> | |